



3면

“초당적 기업유치특위 제안”

전주매일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음 6월 30일) 제30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조찬간담회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 해결을 다짐하며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광수 정무특보, 김윤덕·이원택·신영대·정윤천 의원, 김관영 도지사, 김성주·안호영·윤준병·한병도 의원, 송금현 정책기획관, 윤동욱 일자리경제본부장 순)

충청·전라권 교통안전 교육센터 유치 ‘쾌거’

현장실습 위주 안전운전 체험 전문 기관
익산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교통문화지수 개선·인구 유입효과 기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7일 국토부에서 실시한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 센터 건립 부지 공모 평가에서 익산시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버스·화물·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및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자기 주도형 전문 교육기관으로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 개선, 교통사고 감소 및 교육을 위한 이동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교육센터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기존 교육센터(상주 화성)의 연간 교육정원이 5만명인 반면 연간 체험교육 수요는 8만명 이상으로 수요와 공급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270억원을 지원받아 2023년까지 연간 2만2,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위험회피·고속주행·차체제어·수막현상·교차로주행 체험코스 등 실의 교육시설과 강의실, 식당, 숙소 등 필수시설이 설치되며,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 상주·화성센터와 같이 기본과정, 심화과정, 자격 취득 과정 등이다.

교육센터 건립 위치는 익산시 합월읍 일원(5만 평 정도)으로 버스터미널 KTX역, 고속도로 IC 등이 인접해 있고 충청·전라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권역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신규 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았다.

교육센터 유치를 위해 익산시는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2020~2021년)를 실시했으며, 전라북도의회는 지난해 전북 익산시에 신규 교육센터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회의장 등 각 정당 대표 등에 제출한 바 있고, 전라북도는 익산시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설 계용역비 10억원을 2022년 국가예산에 반영하는데 기여했다.

센터 건설 시에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자재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고, 센터 운영 시에는 센터 내 사회적 기업 매장 운영, 운영 물품 구매 등 관내 지출과 전국의 교육생 유입에 따른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센터 운영인력 등으로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8월 중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익산시의 우선협상 완료, 공단 이사회의 의결 및 국토부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센터 건립 대상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며, 이후 익산시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용지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용지보상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5년까지 센터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을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줄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육을 위한 이동거리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감소 및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더 미룰 수 없다”

김관영 도지사, 도내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
특별법 제정·전북도 기업유치 전략 등 현안논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7일 여의도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 기업유치 전략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도 국회의원들은 전북도 최대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업 유치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북 독자권역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전북발전을 이루자고 뜻을 모았다.

김관영 지사는 “의원님들께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입법에 대한 마음을 모아,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면서 “단계로 올해 말까지 특별법 제정에 목표표를 두고 추진하자”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며,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도내 의원들은 “전북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최대한 빨리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 여야를 넘어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하였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정 이후, 전북에 실익이 되는 특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원, 제주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당부하는 등, 깊이 있는 제안도 이어졌다.

전북의 대기업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전북도는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유치를 위해 우선 국정과제, 도 정책 방향 등을 검토하여 전략산업 중심의 기업유치 대상 분야를 선정할 바 있다며, 향후 선정된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한 용역, 도 전략산업 연계성 등을 분석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별

가치사슬 보안을 위한 주요 중견기업 중심의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어제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두산은 민선8기 첫 대기업 유치 사례로 대기업이 전무한 김제에 최초로 대기업이 투자한 사례이다. (주)두산은 2024년까지 680억 원을 투자하여 김제에 2만 5천평 규모의 기관 소재 공장을 신설하고 11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신사업을 결정해 관련 공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김제가 (주)두산의 생산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앞으로도 도내 정치권과의 협치를 위해 정기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도정 전반에 걸친 여러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소통과 화합의 폭을 넓히고 도민을 위해 한발 더 뛰는 진정한 ‘전북 원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7월 전북 소비자 심리지수
한달 전 보다 15.6p ↓

전북 지역 7월 소비자 체감경기가 한 달 전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잇단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경기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주요 경기주체인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2022년 7월 전북 지역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86.3로 지난달(101.9)보다 15.6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지수별로는 현재생활형편(91→82), 생활형편전망(94→81), 가계수입전망(100→91), 소비지출전망(114→108), 현재경기판단(71→46), 향후경기전망(76→68) 모두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취업기회전망(89→67), 가계저축전망(95→65), 주택가격전망(105→92), 임금수준전망(119→115)도 전월보다 떨어졌다.

당 금리수준전망(143→144), 가계부채전망(100→108)은 전월보다 상승했다. /뉴시스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